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에게 듣는다 \_ 문화일반

##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에 대한 교양적 · 인문적 역량을 아울러 제고시킬 수 있는 일을 했으면

culture 'art

한 국가사회의 문화예술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과 인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문화와 예술은 치열한 훈련으로 창출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인문적 이해가 병행됨으로써 높은 수준의 문화적 · 예술적 성취는 이룩고 가능하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에 대한 교양적 · 인문적 역량을 아울러 제고시킬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언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문화일반  
- 동아일보 기자 (68-75)  
-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98-02)  
-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05-현재)  
- 한길사 대표 (76-현재), 헤이리 이사장 (97-현재)

국민들의 엄청난 기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상당한 국가 공공예산이 우리 위원회에 주어집니다. 이 주어진 예산을 잘 활용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예술을 어떻게 창출해낼 것이며, 이렇게 창출되는 문화예술의 성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잘 누리게 할 것인가가 우리 예술위원회가 해내야 할 아름다운 임무일 것입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체제가 민간인에 의해 운영되는 예술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것은 그 어떤 형식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의 창출과 수용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가능하리라는 기대와 믿음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적인 기대와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예술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성찰하고 연구함은 물론이고 여러 전문가들의 견식과 정보를 두루 모아내는 지혜가 소망스럽습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조적 행위를 지원하는 기구와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탁월한 문화예술이란 그 문화예술의 주체인 문화예술인들의 창조적 상상력과 자율에 의해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에 의해 문화예술 창출행위를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로서 우리 위원회가 존치되고는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의 정신과 기량을 한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문제의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술위원회란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분위기와 체제로 가야 합니다.

한 시대와 국가사회의 문화예술은 어느날 하루아침에 창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술위원회가 하는 일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기획적인 프로그램 지원, 인스탄트가 아니라 콘스탄트한 지원을 통해 우리 국가사회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축적된다 할 것입니다. 시공을 뛰어넘어 아름다움과 감동을 주는 문화예술이란 쉽 않고 흔들림 없이,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창출된다는 철학을 우리 예술위원회는 견지해야 합니다.

한 국가사회의 문화예술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과 인문적인 이해가 전제

됩니다. 물리학과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어떤 과학의 발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문화와 예술은 이론적 인식 내지 토대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안이함이 퍼져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치열한 훈련으로 창출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인문적 이해가 병행됨으로써 높은 수준의 문화적·예술적 성취는 이룩고 가능합니다. 탁월한 문화예술의 창조자는 이미 이론가이자 사상가라고 할 것입니다. 예술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에 대한 교양적·인문적 역량을 아울러 제고시킬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이론과 사상없는 맹목적 문화예술이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 문화예술의 진정한 소비자 주권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이란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키워낼 수 있는 국가사회의 역량이라는 사실을 계몽하고 이해시키는 국민교육 시민교육이 또한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을 창출하고 수용하는 국가사회가 선진의 국가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시민이 문화예술을 일상으로 수용하는 삶을 영위하게 하는 운동을 우리 위원회가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이란 그 창출행위 못지 않게 수용행위가 늘 전제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문화예술의 창출보다 수용에 더 큰 과제를 안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역동적인 문화예술 창출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것을 수용하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인식과 안목이 그에 이르지 못하는 듯합니다. 문화예술의 진정한 소비자 주권시대를 만들어내는 과제가 우리 위원회에 주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문예진흥원에서 인계받은 연 1천억 정도의 집행예산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국가사회의 살림살이 규모로 이견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 공공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지원 육성 프로그램에 연 5천억 수준은 투입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문화예술 지원 육성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 예산의 확보를 위해 이론과 방안을 만들고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것 함께 키워나가는 열린 문제의식이 중요합니다

문화예술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정부 및 공공단체에 의존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국민과 기업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참여와 협력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과 방안을 지혜를 모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이 분명하면 기업과 국민의 참여와 협력도 그만큼 가능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의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토론도 더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의 우리 문화예술운동은 기업과 손잡고 국민과 더불어 해나가야 합니다. 기업들의 문화예술경영, 국민들의 문화예술운동 참여를 도모해내는 다양한 방안과 제도를 여러분들과 손잡고 모색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화예술운동은 우리것을 지키고 키우는 일과 아울러 세계와 호흡하는 차원에서 진전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고유한 우리의 문화예술을 창출해내는 정책 및 구현이 제1차적 과제이지만, 아울러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함께 키워나가는 열린 문제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것만이 최고라는 닫힌 자세로는 세계와 호흡하는 선진의 문화예술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특수와 보편은 결코 떨어져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Arts Council KOREA